

담당부서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장	전재명	2133-7645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2133-7647
담 당 자	배진선	2133-7648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5쪽

## 서울시, 토론회 통해 도심야산 '야생화된 개' 관리 해법 모색

- 28일(화) 14시 상암 에스플렉스에서 시민, 전문가 모여 야생화된 개 대책 논의
- 시와 시민단체 카라에서 야생화된 개의 현황과 재개발지역 중심 실태 발표
- 중앙부처와 자치구도 참여하여 원인 진단과 함께 향후 정책 대안 논의
- 시, 야생화된 유기견 대책을 통해 동물과의 건강한 공존 논의 자리되길 기대

- 서울시는 도심 야산에 서식하는 야생화된 개들이 먹이 부족 등으로 주택가로 출몰, 시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중앙부처, 자치구, 전문가, 시민과 함께 '야생화 된 개'를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서울시는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함께 28일 오후 2시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산에 사는 유기견(들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동물 유기 및 야생화 예방을 위한 2차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 시민토론회에는 시민단체, 관계기관, 중앙부처는 물론 재개발지역 반려동물 전수조사에 참여했던 시민활동가를 비롯하여 시민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시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았지만 여전히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져 이 중 산에서 새끼를 낳고 야생화 된 개가 지속적으로 번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표로 서울시와 함께 동물유기 및 야생화 예방사업을 진행한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김혜란이사가 ‘재개발 지역 동물유기 예방 사업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보고한다.
  - 카라는 올해 6월 20일부터 7월까지 산과 인접한 재개발지역인 갈현, 불광, 노원 백사마을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육 현황과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여부를 조사했다.
  - 조사결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765(12.1%)가구였고, 이중 설문에 응답한 505가구의 584마리 반려동물중 등록된 개는 207마리(35.5%), 중성화 수술된 개는 211마리(36.1%)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평균 동물등록률(50.4%)과 등록동물의 중성화율(5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로 보인다.
  
- 이어 서울시 동물보호과 이운오 동물관리팀장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야생화된 유기견의 실태와 대책’을 발표한다.
  - 서울시는 2011년부터 북한산 등 야산의 야생화된 유기견에 대해 포획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한해 동안만 115마리를 포획했다.
  
- 주제 발표 후 진행되는 지정 토론은 서울대 수의과대 이항 교수를 좌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자치구 관계자와 야생화된 유기견 실태를 취재해 온 언론인이 참여한다.

- 유기견의 야생화 대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김광희사무관과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정지민사무관이 논의한다.
  - 실제 야생화된 유기견의 포획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종로구청 방인석팀장은 야생화된 유기견의 실체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북한산 지역의 유기견 문제를 취재해 온 한겨레 남종영기자는 유기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기존엔 이미 발생한 유기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고민했다면 이번 토론회는 산과 인접한 재개발 지역 등 전수조사를 통해 야생화된 유기견의 발생 원인을 진단해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1) 동물유기 및 야생화 예방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요  
2) 시민토론회 웹 포스터

# 동물유기 및 야생화 예방을 위한 시민토론회

## □ 개 요

- 토론회명 : 동물 유기 및 야생화 예방을 위한 2차 시민토론회
  - 부제 : 산에 사는 유기견(들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 일 시 : 11. 28(화) 14:00~16:00
- 장 소 : 에스플렉스센터 2층 다목적홀
- 참 석 자 : 약 200명
  - 시민단체, 관계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자, 중앙부처(농림부, 환경부)
  - 재개발지역 반려동물 전수조사 요원 등 민간 동물보호 활동가, 시민
- 주최/주관: 서울시 동물보호과/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주제발표 : (사)카라 김혜란이사, 서울시 동물보호과 이운오팀장
- 패 널 : 4명(좌장 : 서울대학교 이항교수)
  - 농림부 김광회사무관, 환경부 정지민사무관, 종로구청 방인석팀장, 한겨레 남종영기자

##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3:40~14:00	접수 및 등록	
14:00~14:05	참석자 내외빈 소개	배진선 사무관
14:05~14:10	인 사 말 씀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14:10~15:50	주제발표 및 토론	
14:10~14:30	재개발지역 동물유기예방 사업의 효과와 한계	김혜란 이사
14:30~14:50	야생화된 유기견의 실태와 대책	이운오 팀장
14:50~15:30	지정토론 - 농림부 김광회사무관, 환경부 정지민사무관 - 종로구청 방인석팀장, 한겨레 남종영기자	좌장 : 이항교수
15:30~15:5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참석자
15:50~16:00	마 무 리	



## 동물유기 및 야생화 예방을 위한 2차 시민토론회

'산에 사는 유기견(들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았지만 여전히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동물은 가정이 아닌 산을 은신처로 삼고 새끼를 낳으며 야생화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은 '들개'라고 부르면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카라는 동물유기와 유기견의 '야생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과 인접한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야생화된 유기견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진단해 보고, 나아가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일시 2017. 11. 28(화) 14시  
 장소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2층 다목적홀  
 주최 서울시 동물보호과  
 주관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프로그램**

- 주제발표**
- (사)카라 김혜란이사 : 재개발지역 동물유기예방 사업의 효과 및 한계
  - 서울시 동물보호과 이운오팀장 : 야생화된 유기견의 실태와 대책

**좌장**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항교수

**지정토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김광희사무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정치민사무관, 종로구 방안석팀장, 한겨레 남중영기자

**의도**

일산,고양			연세대, 광화문
	MBC • SBS YTN CJ E8M 누리꿈스퀘어	DMC역(2출구) • 롯데복합쇼핑몰	
	KBS 미디어센터 • 에스플렉스센터	• 상암초교 • 월드컵파크 2단지	월드컵 경기장
	노을공원	하늘공원	합정 평화의공원
가양대교	강변북로		성산대교

**교통편**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DMC역) 2번 출구  
 - 도보 약 15분 소요  
 - 2번 출구 건너편 버스 670, 7013A, 7013B, 7016  
 ▶ 에스플렉스센터 정류장 하차(약 5분 소요)
  - 버스** 172, 271, 670, 7013A, 7013B, 7016, 7019, 7715, 7733  
 ▶ 월드컵파크2단지 에스플렉스센터 정류장 하차
  - 승용차** 유료주차(주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에스플렉스센터에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만든 유기동물 치료, 입양과 동물보호교육을 위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토론회 참석 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도 둘러보시길 추천합니다.